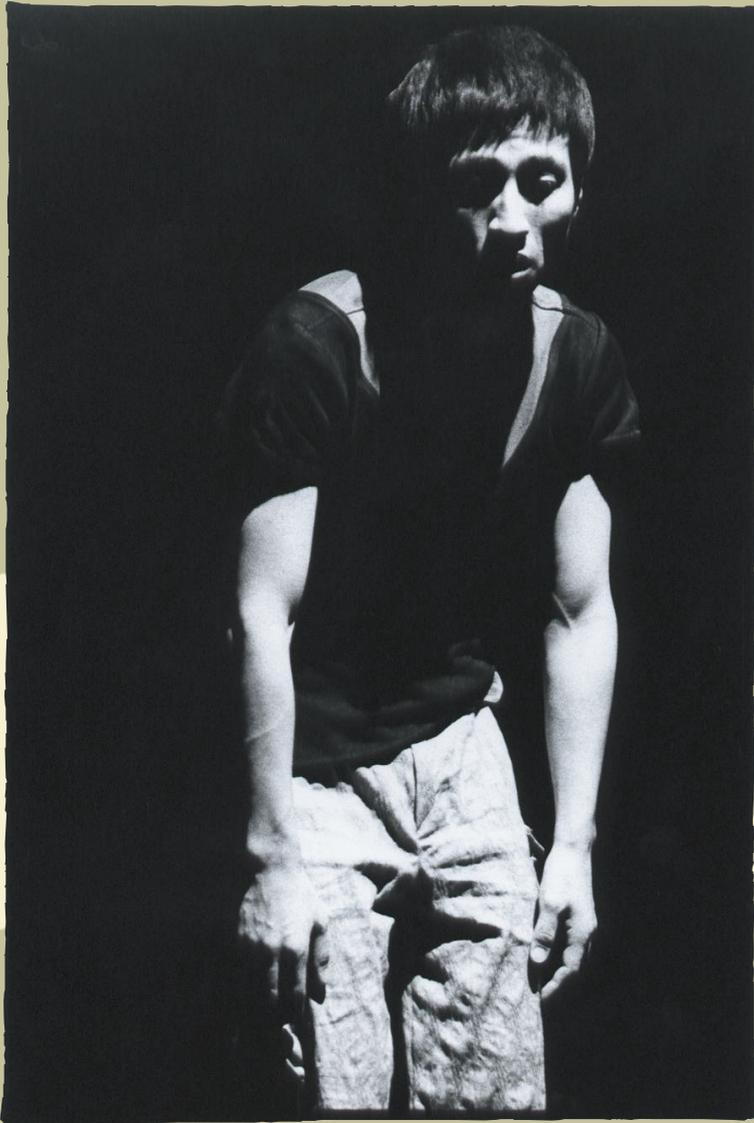


길을 잃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무용가

김남수 | 무용평론가



경영학과 출신의
젊은 남자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삶의 장막을 찢고
춤으로 점프했다.
무용가 김지욱은 아직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그에게는 몸의 언어로
직물을 짜는 나뭇잎의 진실이 있다.
김지욱처럼 이지러진 길 위에서
마냥 방향해보는 것이
젊은 무용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현재 한국 현대무용계는 젊은 무용가에게 기회의 프론티어이다. 안은미는 진화했지만 독일에 있고, 홍승엽은 깊은 고독 속에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으며, 안성수는 작은 기호의 재미난 발산이 있지만 대세는 여전히 변함없다. 무대가 무주공산이라 생각하는 젊은 안무가라면, 과감한 도전 정신을 발휘해볼 필요가 있다. 흐름이 스스로 몸을 뒤채며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아니면, 자신이 그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급함은 금물이 아닐까. 모든 출출 기회를 선별하지 않고 모조리 수락하는 것은 황폐해질 우려도 있다. 가령, 한때 촉망받던 안무가 이경은은 너무나 범람하는 다작 취향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하다. 그래도 무대는 준엄해서 보이지 않는 듯해도 진주 그물망 전체가 한 눈에 보여지기도 한다. 무용가는 무대를 두려워해야 한다.

김지옥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항상 반복되는 관습적인 춤에서 우선 벗어나고 싶어한다. 오히려 길을 잃고 싶어하는 것이다. 길을 잃은 자만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러진 길 위에서 마냥 방황해보는 것, 세계로 나아가 변화를 감지해보는 것이 어쩌면 그의 방법일지 모른다.

반면, 젊은 무용가 김지옥은 아직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는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는 성년의 새가 아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행을 앞두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자신의 몸의 언어로 직물을 찢는 나뭇잎의 진실이 있다. 그것이 부정의 상상력이며 유포 피아적 열망이란 사실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완성형의 스타일은 아니다. 단지 그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항상 반복되는 관습적인 춤에서 우선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다. 오히려 길을 잃고 싶어하는 것이다. 길을 잃은 자만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그저 풀어진 넥타이처럼 이지러진 길 위에서 마냥 방황해보는 것, 세계로 나아가 변화를 감지해보는 것이 어쩌면 김지옥의 방법일지도 모른다. 다소 무모하고 유유자적하게 보이지만, 낙오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못하는 젊은 무용가들보다는 이 쪽이 좀더 여유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결국 이것은 느낌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고, 불안과 초조함이 없다는 것이니까.

신진대사로서의 젊은 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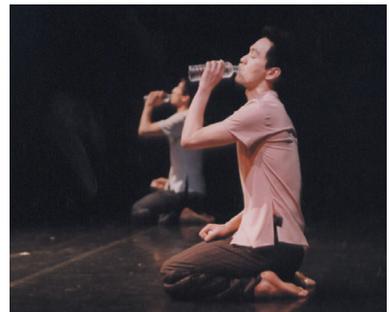
삶에서 출발해보자. 우물 속에 비친 자기 모습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해사한 표정과 깨끗한 피부를 가진 소위 '꽃미남' 계열이지만, 김지옥은 자기 눈을 통해서든, 남의 눈을 통해서든 무임승차하려는 욕심을 버린 듯하다. 또한 예술가의 자의식이 스스로를 잡아먹도록 내버려두지도 않는다.

일단 그에게는 삶과 예술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는 예술적 배타성이 없다. 사회적 공명을 의식하는 면은 있지만 예술과 일상을 분리해놓고 일방적으로 예술을 숭고하게 만들지 않는다. 예술에의 지나친 옹호 때문에 고립된 춤은 스스로 말라비틀어진다는 것을 안다. 생활에 젓줄을 대지 않은 춤도 처음으로 탄생했을 당시에는 신선했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서 고정된 춤의 반복은 낡은 인습으로 떨어진다. 그런 예술춤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김지옥은 고개를 돌린다. 발 밑에서 올라오는 삶의 그림자에 붙들린 것이다. 그는 스스로 삶의 질곡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 질곡과의 악전고투가 자신의 무대에 나타난다고 말한다.

사실 그가 질곡을 표현한 최초의 형식은 '갈증' 이었다. 목마른 자의 각성과 자기 확대가 어떤 의식의 미로를 강하게 터치했다. 2003년 6월에 공연된 안무데뷔작 <무더운 오후>에서 김지옥은 한여름 어느 무더운 오후의 일상이 가진 짜증과 권태를 여과 없이 표출했다. 그가 파악한 일상성은 일상 그대로의 누추함이 있었지만, 그는 매우 발랄하고 날카롭게 그 일상을 관통했다. 무용수 박근태, 이순주와 파트너쉽을 이뤄 뛰어난 기예를 발산하다가 갑자기 강박관념의 벽을 만났다. 생수 1통을 놓고 동성애적 분위기를 풍기더니, 이내 빛의 사각형 속에서 춤추는 자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소매는 짧고 단추는 2개뿐이며, 바지는 너무 길어!" 라는 대사와 함께 자신의 몸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욕구불만과 자학으로 넘쳐났다.

이러한 풍경에서 김지옥의 자기 분석은 일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좀더 가족사에 걸친 깊이 있는 정신분석에 이를 만큼 객관화가 되어 있었다. 내적으로 진흙탕을 뒹굴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현상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무대에서는 파괴적인 표현력과 이성적인 전환 사이에서 길을 더듬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스스로 길을 잃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가 우리 현대무용계에서 자신의 젊은 안무로 발돋움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신진대사는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대사작용이 김지옥에게는 좀더 파괴적이며 부정의 상상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김지옥에게는
삶과 예술이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는 예술적 배타성이 없다.
사회적 공명을 의식하는 면은 있지만
예술과 일상을 분리해놓고
일방적으로 예술을
숭고하게 만들지 않는다.
예술에의 지나친 옹호 때문에
고립된 춤은 스스로
말라 비틀어진다는 것을 안다.





김지옥의 두 번째 공연작
내가 너를 파괴하기 전에 내 이름을 불러줘
〈Call My Name〉

왼쪽 페이지
안무데뷔작, 일상에 구멍 뚫기 〈무더운 오후〉

테스(TEs)족 이데올로기

다행한 일은 김지옥이 고립된 예술관을 갖지 않은 것처럼 춤 동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무대에서 파괴적인 춤을 추기 때문에 작품이 과격한 인상을 던져준다. 2004년 10월말에 공연된 그의 두 번째 안무작 〈Call My Name〉에서 '살아있음'은 사랑스런 시선을 가진 존재조차 바닥으로 떨어뜨려 그 존재의 빛을 뭉개는 것으로 처절하게 발산된 바 있다. 거기서 몸의 존재감이 탁월한 무용수 이순주를 사정없이 압박하는 안무를 펼쳐 보였다. 역시 박근태가 그녀의 우아하고 생활감각 뛰어난 몸의 느낌을 한없이 구기고 결국 추락시키는 모습에서 김지옥의 지독한 안무를 체험했다. 확실히 그에 대한 일정한 신뢰감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안무였다.

그 공연은 TES 무용단 창단공연이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를 졸업한 김지옥, 박근태, 정헌재, 이순주 등등이 뭉쳐서 만든 독립적 성향의 무용단이다. Time, Energy, Space라는 의미를 담은 TES는 자급자족하면서 새로운 춤 작품을 만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즉 TES 무용센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한다. 이런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태도는 젊은 무용가의 존재론으로서 이상적이다. 마르크스가 충고한 것처럼 “네 갈 길을 가라! 남이야 뭐라든”이라는 모토가 이들의 생각이다.

이 무용단의 대표이기도 한 김지옥은 사실 비전공자이다. 홍승엽이나 안성수, 박호빈처럼 타 전공자였다가 중도에 춤을 시작한 위인이다. 경영학과 출신의 젊은 남자가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삶의 장막을 찢고 춤으로 점프했다. 위기이자 계기로서의 삶의 결단이 그의 거침없는 안무적 성향에도 내비친다. 비가시적인 길, 모습도 목소리도 없는 길에서 그는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다. 춤을 추면서 그는 일상적인 관계망에 갇힌 듯한 느낌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졌을까. 그물망의 한 매듭으로 존재하는 무용수로서 안주하게 되었을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점차 그 그물망을 넓히는 작업에 들어갔다. 자신의 춤을 만들려고 했고, 그런 작은 실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지옥은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가 가진 잠재력은 춤에 대한 사랑이자 열정이다. 그는 춤 바깥의 맥락을 알면서 그 열정을 현대무용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로 활용하려 한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 물론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몸을 마주할 때, 존재의 확인이나 사랑의 느낌 같은 태도로 안무에 접근하지 않는다. 김지옥이 가진 젊은 안무는 아직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무게가 녹록치

않게 얽혀 있다. 나는 그의 그런 가능성에 새움이 트기를 희망하면서 그 무계에 휘청거리지 않기를 또한 바라고 있다.

춤의 해방적 형식을 꿈꾸는 청년

시선을 다시 돌려보자. 우리 현대무용은 진정한 변화를 피하는가. 과거의 유산을 팔아먹으며 집착하지는 않는가. 나이가 젊은 무용가들은 똑같은 틀로 찍어내려는 거대한 음모에 저항하고 있는가. 좋은 것이 좋고, 평지 풍파는 곤란하다는 식의 이상한 문화논리에 종속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구식화 경향에도 눈감고, 얼어붙은 내면 저항과 빈곤한 춤의 형식에 자기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뼈저린 질문이다. 도전적으로 반항하고 대안적으로 전복한다는 젊은 예술가의 특권은 실종된 상태가 아닌가. 구식의 춤을 추면서도 소위 정상적인 춤이란 쪽박에 물이 줄줄 새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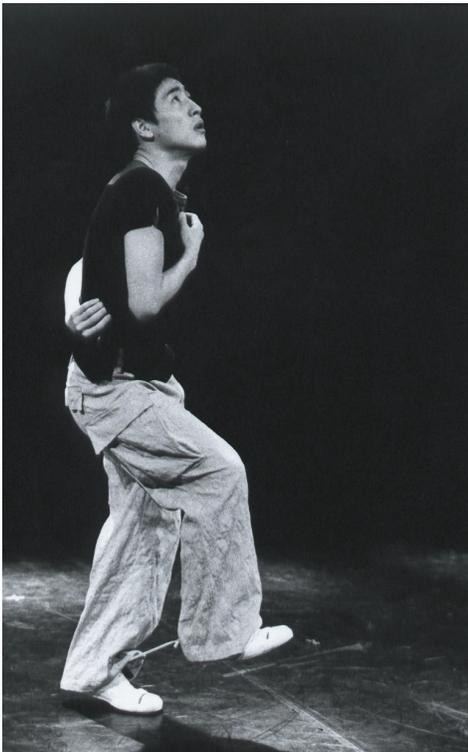
이런 질문의 지형도에서 김지옥의 방법은 일리가 있다. 길을 잃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것, 그 길잃음이 가진 투명성 혹은 정직성이 스스로 말을 한다는 것. 춤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면서도 무대에서 모든 것은 자유롭게 열려 있다는 '생각의 0도'에서 출발한다는 것. 물론 이것은 김지옥을 포함한 TES 공동체의 감각이라고 생각된다. 어쨌거나 그에게 발견되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취향은 현재의 것이라기 보다는 미래의 것이다.

그가 지난 3월초 현대무용 뮤지엄에서 썼던 <문 앞에 서서>는 여전히 내부적인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그것이 좀더 보편적이고 사회적으로 열려지는 포인트를 획득하기 원했다. 의자에 걸박된 포즈, 등 뒤에 자리한 창살의 격자무늬, 주머니 속에서 탈탈 털려 나오는 각종 잡동사니, 발목이 묶인 채 아기자기한 춤의 설계가 있었다. 하지만 좀더 폭넓고 대범하게 열려지기를 바란 것은 안무 스타일의 치밀성, 완성도를 주조하기보다는 더 많은 춤의 가능성과 미래를 염담하는 것이 그에게는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컬트적인 세부 집착보다는 경이로울 정도로 세계의 폭넓음 그리고 취향적인 춤 대중의 존재를 타진해야 하는 게 아닐까.

물론 김지옥에게는 '컴포지션'의 안무력이 있어서 중심적 뼈대를 갖고 알기 쉽게 춤을 짜고 직물화를 피하는 역량이 된다. 또한 낭만적 사랑, 아

길을 잃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것,
그 길 잃음이 가진 투명성
혹은 정직성이
스스로 말을 한다는 것.
춤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면서도
무대에서 모든 것은
자유롭게 열려 있다는
'생각의 0도'에서 출발한다는 것.
물론 이것은 김지옥을
포함한 TES 공동체의 감각이다.





〈문 앞에 서서〉에서 김지옥은 법, 아버지, 초자아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를 표현했다.

왼쪽 페이지
〈무더운 오후〉

름다움, 편안함을 믿지 않고, 현대의 불안과 우울을 감지하는 감수성이 있다. 말하자면, 그가 무대에서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안무를 하는 것과 LDP 무용단에서 폭력에의 취향이 있는 안무를 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자는 내적 갈등, 하위 문화, 세대적 경험 등등이 단지 공유된 체험으로 올라서지 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지만, 후자는 폭력의 인플레이션을 통해 안무자 개인의 도착적인 증세를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폭력을 다루는 안무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쿨하게 소비되는 스타일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무나 맹목적이고 뻔뻔한 마초 취향이기 때문이다.

파괴, 폭력, 그리고 냉소라는 관점에서 아직 김지옥은 이슬아슬한 절벽 산책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의 무대에 가득한 그 살벌하고 불안정한 분위기는 그의 자기분석대로라면, 오이디푸스적인 산물이 아닌가 싶다. 아버지, 법, 초자아에 포위된 자아의 모험. 사실 오이디푸스의 매듭은 알렉산더가 잘라버린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달라서 쉽지 않다. 어떻게 스스로를 해방할 것인가.

춤이라는 지평선에서의 긴 여행

TES를 믿는다. 공동체의 힘을 믿는다. 박근태의 그 순도 높은 탄츠테아터의 문법과 이순주의 결국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몸감, 정현재의 탁월한 경영 능력, 그리고 '대위법적 안무'를 선보인 신예 윤성희, 되바라짐과 성스러움의 두 얼굴을 가진 백은영을 비롯한 무용수들이 있기에 TES의 김지옥을 신뢰한다.

무대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젊은 무용가들이 서로 힘을 합쳐 공연의 케미컬로서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지옥은 행복하다. 그는 온통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를 걷고 있는 셈이다. 그 여행의 끝에는 길 잃은 자의 걸음이 음미해온 과정이 스스로 제출하는 답변이 있을 것이다.

무주공산은 무혈입성하는 것이 아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피와 땀을 흘리지 않고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설령 자신의 집을 지었다고 그 속에 평화롭게 머무를 수 있겠는가. 김지옥의 여행이 원을 그렸을 때, 즉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는 다시 묻고자 한다. 춤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